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80年을 향한 標語

1. 새 세대에 교회를 형성하자
2. 재일동포의 새로운 삶을 지향하자
3. 세계역사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자



THE GOSPEL NEWS

8月15日(木) <1985年> 第422号

発行所 福音新聞社

160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電話 03(202)5398番

発行人 洪永其・編集人 金君植

毎月1回 15日発行 購読料 1部 50円

昭和38年9月20日第3種郵便物認可

印刷所・青丘文化社

光復節(8・15) 期해

指紋拒否者100名내기로



伊勢・賢島에서 모인 敎役者・長老 夏期修養會
(上은 主題講師 崔基興監督)

所望中에 前進을 敎役者・長老修養會 열어

總會教育局(局長 金德成牧師) 修養會가 七月二十四~二十六 日, 伊勢・賢島 뉴ホテル에 다. 八十余名이 모여 開催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란 主題 아래 基督教大韓監理會富川第一敎會의 崔基興監督과 카나다長老敎外國宣敎部總務 G・데비스牧師를 特別講師로 오늘의 宣敎方案을 모색했다.

崔基興監督은 세번의 主題講演을 통해「敎會成長을 위한 活性化方案」을 提示했다. 崔基興監督은 T・S・엘리오트의 말을 引用하여「基督教은 更新되는지 아니면 서서히 물러가든지」해야하며 生命 있는 敎會를 만들기 위해 組織과 管理가 重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韓國敎會에 있어서「區域性」혹은「屬會」가 敎會成長의 阻礙因子가 되며 信徒訓練의 現場이라고 지적했다. 崔基興監督은 默示錄에 나타나는 사자 숫자지표 수리 사람들 풀이 용맹한 信仰, 소와같이 참는 信仰, 독수리와 같이 신속하게 대답하는 信仰, 사람과 같이 智慧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비스牧師는 과거 宣敎敎師로서 總會에 물을 담았던 日을 회고하면서 扶況을 잘 파악하여 거기에 앞서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宣敎단 外國에 가서 宣敎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 나님께서 믿는자를 이세상에 보내시는 것이라 전제하면서 보낸다는 이세상이 믿는자가 적으면 믿는자가 많도록 보낸다는 現場이 二・三世가 많으면 그들의 말을 배워 그들이 앞기게게 말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二十四日 水曜祈禱會는 金信煥牧師(廣島敎會)가 金安弘牧師의 司會로 親睦會를 가졌다. 開會禮拜는 洪永其總會長이 閉會禮拜는 金德成敎育局長이 祈禱會는 裴基秀長老(宇部敎會)와 李建

豪長老(名古屋敎會)가 擔當했다.

指紋問題에 關해 李仁夏牧師가 講演했다. 指紋問題를 對한 在日韓國人이 당하고 있는 問題를 聖書의 原則로 풀이하며 李仁夏牧師 自身도 八月十五日 指紋을 拒否하겠다고 宣言했다. 金得三, 崔昌華牧師의 反應이 있을후 指紋 拒否한 崔昌華, 金得三, 崔正剛諸牧師, 姜南中, 吳在憲, 俞錫濤, 李先祚諸長老가 앞어나 尹載旺長老 祈禱하였다.

總會討論에서 八月十五日에 한敎會에서 二名程度, 五十에 서 百名의 指紋拒否者를 내기로 하다. 名古屋敎會의 趙元國長老도 拒否하겠다고 宣言하였다.

第八回 CCA 總會서

指紋制度撤廢決議

아시아기독교敎회의會(CCA) 第八回定期總會가 六月二十六 日부터 七月二日까지 에수그 리스도, 自由게 하사 섬기게



韓國・서울長老敎神學大學에서 모인 CCA 總會

하신다」란 主題 아래 서울長老敎神學大學에서 열렸다. 아시아기독교敎회의會는 十七個國九十一敎團, 十五基督教協會會로 구성되며 이번 總會에는 總代百五十四名, 任員 實務者 등 總三百余名이 參席했다.

開會禮拜는 뉴질랜드 마오리족出身인 聖公會의 호네카神父가 說敎했다. 호네카神父는「CCA가 敎會를 성결한 것인가世上을 성결한 것인가를 質問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會議에 들어가 새로 加入을 申請한 韓國福音敎會, 北東印度 長老敎會, 파키스탄과 오래敎會協會의 會員加入을 受諾했다.

CCA會長團 四人을 代表 하여 香港의 鍾主教는「오늘

날 아시아敎會는 政治權力, 宗教 理念의 不寬容 都市化 産業化로부터 生存의 威脅을 받고있다」고 強調했다.

약칭하오總務는「오늘날 韓國敎會의 成長은 韓國敎會가 敎會初期부터 民族問題에 同 參한 것이 하나의 原因이라」고 지적했다.

약칭하오總務의 任期滿了로 後任總務를 選出하는데 많은 時間이 걸렸다. 먼저 投票方式問題가 대두됐다. 日本과 같은 合同敎會는 票數가 八票 밖에 없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地域敎會는 五十票나 있어 議長團은 投票方式의 改正案을 上程하기로했다. 改正案은 이번엔 實施되지 못했다.

總務後補로 朴相曾牧師(韓國)와 金九(票對 六)票로 朴相曾牧師가 選出됐다.

CCA 總會는「在日外國人의 指紋捺印에 關한 決議」를 採 決했다.

다음은 決議文이다.

우리는 外國人登錄法에 있어 指紋捺印義務가 國際的으로 인정받고 있는 基本的人權의 精神에 違反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日本의 諸敎會가 外國人 特別히 在日韓國・朝鮮人에 대한 指紋捺印制度에 反對하고 있음을 알고있다.

따라서 우리는 指紋捺印拒否를 理由로 逮捕, 起訴된 在日韓國・朝鮮人 및 앞으로 當局에 의해 逮捕, 起訴가 予測되는 指紋拒否者 또는 拒否子定者에 대해 連帶의 意志를 表明한다.

아시아기독교敎회의會 總會는 이問題에 대해 깊은 關心을 갖고 外國人登錄法에 있어서의 指紋捺印制度의 撤廢를 要求하며 그意志를 日本政府當局 및 衆・參兩議院에게 전달 것을 決議한다.

一九八五年七月二日
아시아기독교敎회의會 제八회 총회 韓國・서울에서

재미동포 一萬名 署名

金元三牧師가 日本政府에 傳達



金元三牧師

며 많은 差別이 아직도 있는것을 直接 듣고, 미국에 돌아갔다. 특히 外國人登錄法의 指紋捺印制度가 三・四世에게 까지 強요하고 있음을 듣고 日本政府의 閉鎖性과 在日韓國人의 歷史的 背景을 無視하고 犯罪者 取扱하는 指紋制度를 계속함에 本敎 神學者들에게 呼訴 一萬名의 署名을 받았다. 하와이 在日牧師는 短時日內에 一千名을 모 아 보내왔다고 미국기독교동포들의 깊은 關心을 傳했다.

金元三牧師는 日本NCC總幹事를 비롯 大韓婦人會 順姬會長등과 만났고 十四日에 있었던 關西大集會, 十八日에 東京地方裁判所에서의 出入口訴訟에도 參席, 在日韓國人의 實情을 直接 보고 듣게됐다.

金元三牧師는 廣島도 訪問하여 被爆者들도 만났다. 指紋을 拒否한 韓宗碩氏등에 指紋裁判에 있어서의 日本人의 民族差別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도 들었다며 二十二日 미국으로 떠났다.

松永運輸株式会社

專務取締役 張 鍾 善
(名古屋敎會 執事)

〒451 名古屋市西区児玉町1-6
電話 (052) 531-5850

山王山グループ 株式会社 山王山

專務取締役 柳 善 治

岐阜市金町1丁目8番地(平和通り)
TEL (0582) 66-5930(代)

愛三産業株式会社

濟州カントリークラブ

代表取締役 白 昌 鎬
(東京敎會 按手執事)

本社 〒130 東京都墨田区江東橋4丁目
6番4号 ホワイトビル
電話 (03) 633-7477(代表)

投稿

在日同胞の心

俞錫

清(京都教会長老)



在日同胞は、日帝時代から、戦後、日本国に留まり、今日まで、在日同胞として生きてきた。...

説教



岐路に立つ在日同胞

光復節を迎えて

〈エレミヤ29:4-7〉

金桂 吳牧師(岐阜教会)

わが祖国は四十年前、うばわれた民族の主体性を取り戻した。...



三喜建設株式会社
土地・分譲住宅・建築設計・施工
代表取締役 鄭且聲 (大阪教会長老)

婦人服製造卸 恵商店
代表 金容秋 (大阪教会長老)
TEL(06) 245-5306

聖和商事
タイ王室に果実納品(14年間継続中)
代表者 禹永吉 (武庫川教会長老)

李鐘国執事 長老将立式

神戸東部教会서 거행



李 鐘 國 長 老

李鐘國執事の 長老特立式。
四月二十八日(日)午後四時、
神戸東部教会서 엄숙히 舉行
됐다。

堂會長 金炯卓牧師의 司會
아래 金德化牧師(京都南部教
會)의 祈禱, 司會者의 聖書
奉誦(마가八·三四·九·一)
金得三牧師(西宮教會)의「主
님의 뒤를 따라서」란 說教
가 있었다。

関西地方會長 楊炯春牧師의
司式아래 長老特立반는 李鐘
國執事에게 誓約과 牧師 長
老에 의한 長老按手 그리고
宣布가 있었다。

李鐘國長老에게 金德成牧師

(大阪教會)와 神戸東部教會
信徒에게 金安弘牧師(平野教會)
의 勸勉이 있었다. 地方
會代表 長老會代表 齋錫清長
老의 祝辭(代讀)이 있을후
教會代表로 韓胤周長老가 將
立받은 李鍾國長老가 記念品
을 贈呈했고 教會의 各部도
꽃다발을 贈呈하여 祝賀했다
玄承植執事의 祝文祝電披露가
있을후 李鍾國長老의 인사가
있었다. 楊桐春牧師의 祝禱로
將立式을 閉會했다.

李鍾國長老는 一九四三年十
月十八日生, 一九六〇年九月의
大阪北部教會서 洗礼받고 一
九七四年부터 執事로 充實히
教會에서 奉仕해왔다. 教會學
校教師로 十年間, 聖歌隊長
으로 十年間, 모범적으로 奉
仕. 大阪基督教短期大學初等教
育科卒業. 社會福祉法人 愛神
愛隣舍勤務. 大阪北部教會의 李
小龍長老의 三男.



外登法改正を求め、聖マリア大聖堂に集まった
韓・日教会の関係者たち

関西大集会開かる

外登法問題を訴える

聖マリア大聖堂に二千人参加

指紋押捺制度の撤廃を求めて
外登法問題を訴える関西大集会
が、七月十四日（日）午後三時

教の司会を進められ、越智常雄
牧師の祈り、金徳化牧師の聖書
朗読（ヨハネ十四・七・一二）
安田久雄大司教のメッセージが
あった。安田久雄大司教は「指
紋押捺や常時携帯の義務が、日
本国民に準じる地位を法的に認
められている定住外国人にまで
及ぼされるのは、不合理な差別
であり、人権擁護の点からみて



鄭煥九牧師

鄭煥九牧師委任式

浜松教会서 举行

鄭煥九牧師의 委任式이 三月三十日(日)午後四時 浜松教會에서 盛大히 舉行되었다.

臨時堂會長 黃義生牧師(名古屋教會)의 司會 아래 金光在長老(岐阜教會)의 祈禱, 徐又春長老(名古屋教會)의 聖書奉誦(고린도후서 十·十五·十八) 中部地方會連合聖歌隊의 讚揚, 金承弼牧師(岡崎教會)의 「認定받은 사람」의 說教가 있었다.

地方會長 李聖雨牧師(豐橋教會)의 司式으로 委任받은鄭煥九牧師와 浜松教會 敎友에게 誓約이 있었다. 李聖雨牧師가 委任받은 牧師에게, 金光洙長老(名古屋教會)가敎友에게 勸勉이 있었다. 金松子, 尹秀玉兩敎事가 記念品을鄭煥九牧師에게 贈呈했다.

張鍾善敎事(名古屋教會)의 祝電披露, 鄭煥九牧師의 인사와 祝禱, 李建豪長老(名古屋教會)의 光顧로 委任札拜를 恩惠스럽게 마쳤다.

浜松教會는 一九五六年度에 創立, 李植烈長老(當時東京教會)와 朴禹萬宣敎師가 設立했다. 一九八一年에 鄭煥九牧師가 赴任하여 教會堂도 修

理하고 날로 復興發展하는
을대있다.

委任한 鄭煥九牧師는 大韓
예수교長老會가 派遣한 宣教
師이다.

鄭煥九牧師는 日帝下, 東京
講師に今村

指紋問

關

總會は、外国人登録法における指紋捺捺制度の撤廃を求めているが、関東地方会社会部（部長 姜榮一牧師）は、都諸職會を六月三十日、東京韓国YMCAで開いた。

第一礼拝は、社会部長 姜榮一牧師の司會のもと、金太休長老（西新井教会）の祈禱、尹完銀牧師（横浜教会）の説教（マタイ四・二三一二五、今日における教会の使命）があった。地方会長 高完品牧師の祝禱で礼拝を終えた。

第二部は、金広照執事（横浜教会）の司會で進められ、今村嗣夫并護士「教団百人町教会々々」

會を 하고 자 總會加入을 決意했다. 지난 六月에 가 진 定期地方會에서 總會에 加入하 여 이번엔 委任式을 갖게 됐 다.

護士招き

題勉強會

東 都諸職会で

員、出入國裁裁判護士」の講演が約一時間あった。今村弁護士は、國際人權時代と「指紋」拒否訴訟のテーマで、國際慣習法の變革を五時代に区分してわかり易く説明した。第一を外國人の敵視時代とし、異民族、異教徒排斥の時代で、聖書の中の異邦人は、救いの外にあるといわれていることを指摘した。

第二は、賤外主義の時代で、外國人は自分より劣った者とみなし、よそ者への蔑視が強かった。

第三は、主權的民族國家の併存時代で、一七八九年のフランスの人權宣言等にあられてはいるが、内外人平等の原則をつ

講師に今村弁護士招き
指紋問題勉強会

関東都諸職会で

たい、自由の故に祖国を奪われた人に庇護を与えるフランスのジャコバン憲法をあげた。第五は、定住外国人の人権を保障することを強調「同化なき共存」をめざすべきだと語った。

今村弁護士は、民族差別をなくすことは、人類の課題である。

この問題に誇りと勇氣を取り組んでいることに
らわすと語った。五・
省通達にもふれ、多く
を指摘した。参加者た
否と留保の違い、警察
について質問が集中し



85 6 30

東京韓国YMCAで開かれた
関東地方会都諸職会

仙台伝道所가 여름修練会

藏王에 24名参加

仙台伝道所(金致福牧師)는
 지난七月二十七日(土)부터二
 十九日(月)까지 藏王에 있
 는 東北学院大学 세미나하우
 스에서 여름修練회를 가졌다.

約二十四名이 參加했다.

仙台伝道所는 總會가 推進하고 있는 宣教八十周年의 開拓伝道地의 하나로 一九八四年十二月에 創立礼拜를 드렸었다. 創立礼拜에는 十六名이出席했었는데 原敎人 崔有景氏를 비롯, 領事館 留學生들이 參席했다.

六月二日에는 野外礼拜를 갖고 이번 여름修練會를 通해 仙台伝道所는 그基礎를 더욱 튼튼하게 세우게 됐다. 修練會場所인 東北學院大學세미나하우스는 日大學이 特別히 提供해 주었고 거울에는 스키타로 有名한 藏王에 있어 아름답고 시원한 場所에서 마을것 修練會를 가질수 있었다. 每主日礼拜場所는 日本基督教団仙台學生センター。

仙台伝道所는 關東地方會가 數年前부터 開拓을 試圖해왔다. 黃義生牧師, 孟哲輝牧師들이 仙台開拓을 시작했으나金致福牧師가 赴任하므로 本格的인 教會形成이 이루어지고 있다.

博宝工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沈 栄 吉
(福岡教会 執事)

〒812 福岡市博多区大博町13-22
TEL 092-271-2126 番

食肉加工・惣菜製造・食品輸入

株式会社 高山食品

名誉会長 元 洪 植 (福岡教会長老)
代表取締役 元 昭 三 (福岡教会執事)

本 社 福岡市博多区東那珂3丁目9-26
〒816 電話 (092) 461-0055(代)

営業所 神戸市中央区国香通4-1-2新大国ビル702
〒651 電話 (078) 242-4018

製鋼原料・非鉄金属

武 本 商 会

代表者 斐 基 秀
(宇部教会 長老)

〒759-20 宇部市厚南区上中野七区
電話 0836 (41) 3334

